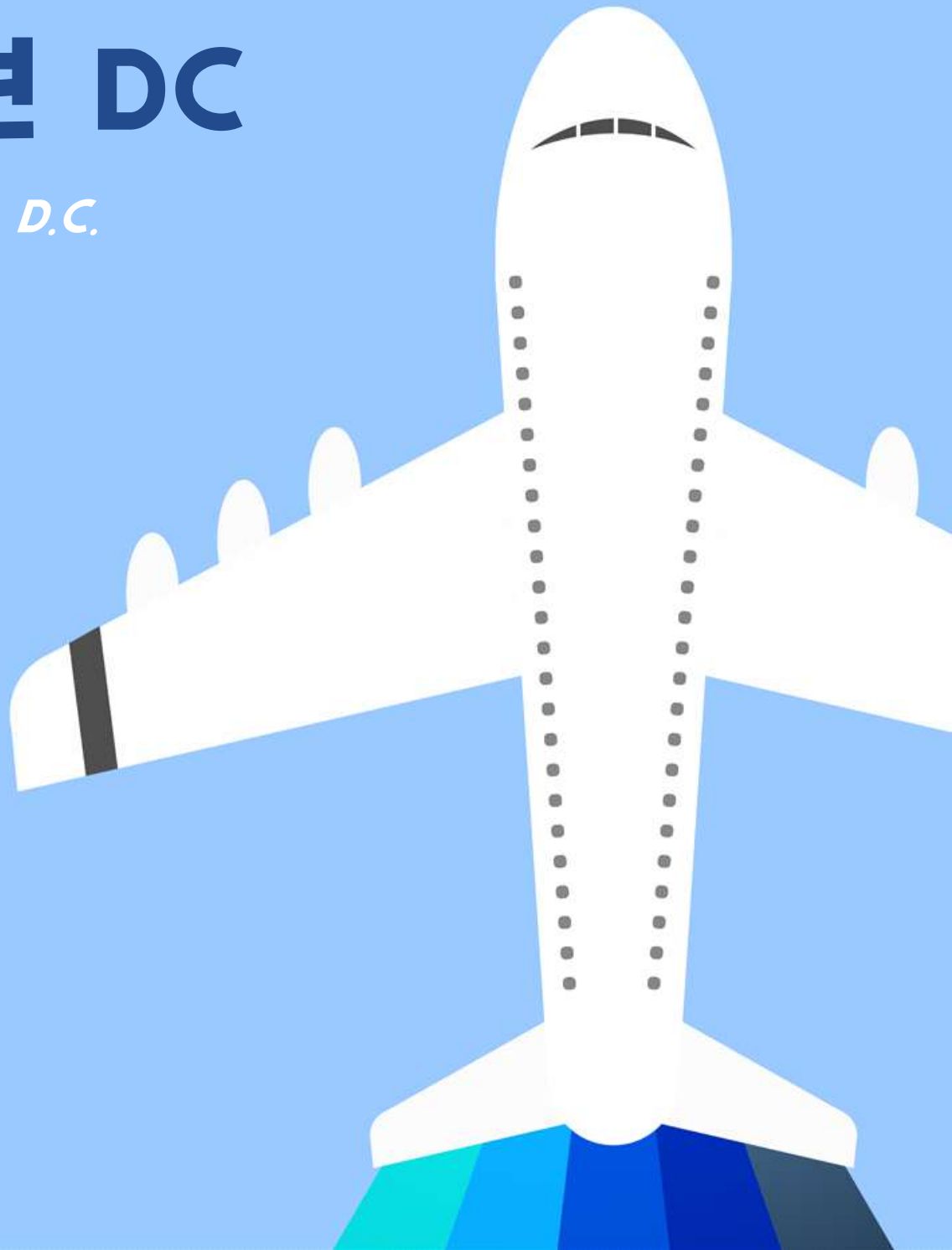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미국 워싱턴 DC

Washington D.C.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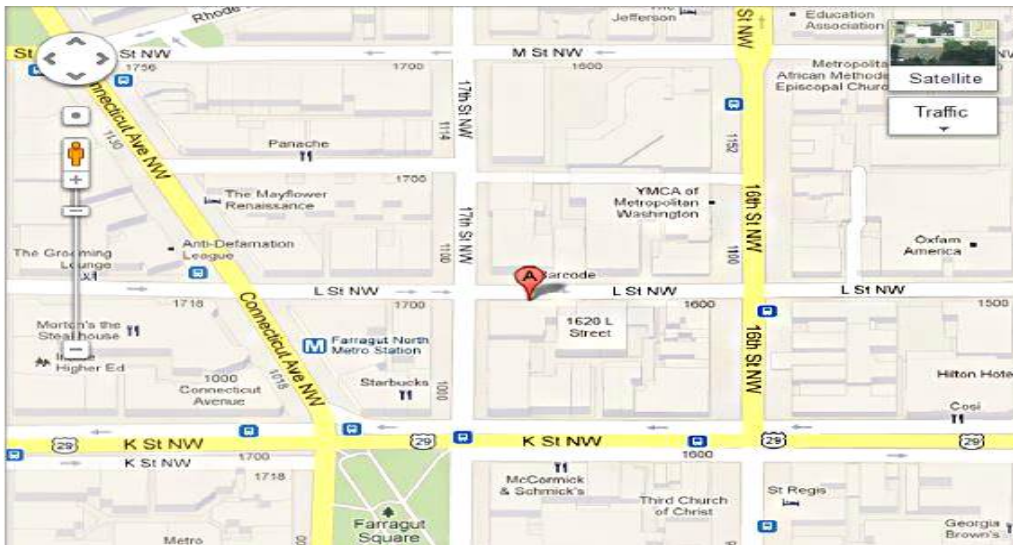
I. 출장 참고정보	01
무역관 정보	
출장 시 유의사항	
II. 미국 경제 동향	10
국가 개요	
주요 경제지표	
최근 경제 동향	
III. 교역 동향	14
주요 교역동향	
한국과의 경제교류	
IV. 워싱턴 지역정보	19
일반 사항	
주요 경제지표	
워싱턴 지역경제위상	
V. 기타 유용정보	23
주요 기념물 및 관광지	
호텔 및 식당	
유용한 연락처	

I. 출장 참고정보

1. 무역관 정보

□ 워싱턴 무역관 위치

- 주소 : 1660 L Stree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 전화 : 1-202-857-7919
- 팩스 : 1-202-525-2769
- 업무시간 : 9:00~17:00 (주말, 미 연방 공휴일 휴무)
- 교통 : Farragut West역 17가 방향 또는 Farragut North역 L Street 방향
- 무역관은 DC 북서부(NW) 17번가와 L Street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



□ 공항에서 워싱턴 무역관 오시는 방법

- Dulles 공항(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으로부터
 - 거리 : 25마일(40km)
 - 교통편 : 공항버스 또는 택시(지하철 없음)
 - 공항버스(Washington Flyer) 이용 시 시내까지 편도요금은 16달러로 약 45분 소요되며 Capital Hilton Hotel 인근에서 하차
 - 택시 이용 시 시내까지 요금은 약 60달러로 40분 소요

- National 공항(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Airport)으로부터
 - 거리 : 5마일(8km)
 - 교통편 : 지하철 또는 택시
 - 지하철 이용 시 공항역(National Airport Station)에서 Blue Line 승차, Farragut West 역에서 하차하여 17가와 L Street이 만나는 지점
 - 택시 이용 시 시내까지 요금은 약 20달러

2. 출장 시 유의사항

□ 출입국 / 비자

- 입국절차
 - 세관신고서 작성 요구가 없어지며, 입국 심사 시 대질
 - 세관신고서에 흔히 요구되었던 면세품 관련 및 현금 보유액 등의 질문을 미리 숙지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처음 도착한 미국 공항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출입국 관리 및 통관 절차를 거쳐 CBP의 입국 승인을 받게 됨.
 - 출입국 검색 시에는 생체 인식 수단(지문채취)을 통해 여행객의 신원과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입국 목적, 여행 경비를 충당할 자금이 충분한지, 미국 출국 계획 등을 질문받을 수 있음
 - 2013년 4월부터 미국 I-94(출입국 기록)가 전산화되어 미국 방문자는 입국 시에 I-94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도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게 되었으나, 미국 입국 심사 직원들이 미국 체류 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므로 입국 시 여권에 받는 이민국 도장에 입국일, 입국 신분, 체류 만기 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비자
 - 한·미 양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VMP) 체결로, 아래의 자격 요건 충족 시 비자 없이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 내 체류 가능 :
 - * 칩이 있는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함.
 - *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함.

○ 주한 미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 전화 : 서울지역 02) 6009-9170

한국 내 모든 지역은 국번 없이 1600-8884

□ 주요 직항 항공편

구분	노선	기 편	출발시간	출발 요일	도착시간 (현지시간기준)
직항	인천-워싱턴	대한항공 093	10:25	화/수/금/일	11:25
	워싱턴-인천	대한항공 094	13:25	화/수/금/일	16:50 (+1일)
경유	인천-미네아폴리스- 워싱턴	대한항공 5033 델타항공 4803	19:40	매일	23:54
	워싱턴-미네아폴리스- 인천	델타항공 3949 대한항공 5034	12:05	매일	17:20 (+1일)

□ 기후

<미국 주요 도시 연중 기온>

	1	2	3	4	5	6	7	8	9	10	11	12
뉴욕	-3~4	-2~5	2~10	7~16	12~22	18~26	21~29	20~28	16~24	10~18	5~12	0~7
워싱턴	-3~6	-2~7	2~12	7~18	12~24	17~28	20~31	19~29	15~26	9~20	3~13	-2~7
LA	9~20	10~20	11~21	12~23	14~24	16~26	18~28	18~29	17~28	15~26	11~23	9~20
샌프란시스코	8~14	9~16	9~17	10~17	11~18	12~19	12~19	13~20	13~21	12~21	10~17	8~14
시카고	-9~0	-7~2	-2~8	4~15	9~21	15~27	18~29	17~28	12~24	6~17	0~9	-6~2
휴스턴	6~17	8~19	11~23	15~26	20~30	23~33	24~34	24~35	21~32	16~28	11~23	7~18

* 자료원 : National Weather Service

- 워싱턴 인근 날씨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며, 날씨가 가장 좋은 봄(4~5월)과 가을(9~10월)이 방문 적기임.

- 복장은 한국 날씨에 맞게 준비하되, 봄, 가을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한 가디건 등의 겉옷과 작은 우산 지참이 도움이 됨.

□ 시차

- 미국의 시간대는 하와이 시간대(HT), 알래스카 시간대, 태평양 시간대(PT)와 산악 시간대(MT), 중부 시간대(CT), 동부 시간대(ET)로 나누어지며 한국과의 시차는 아래 시간만큼 느림.
- 워싱턴 D.C.는 미국 동부시간(ET)을 따라 통상 한국보다 14시간 느리며, 일광절약시간의 경우 13시간 느림.

<미국 시차 표>

시간대	일반시차	일광절약시간	시간대 포함 도시(예)
동부시간 (ET)	-14	-13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 DC
중부시간 (CT)	-15	-14	시카고, 텍사스
산악시간 (MT)	-16	-15	덴버
서부시간 (PT)	-17	-16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고
알래스카시간	-18	-17	앵커리지
하와이시간 (HT)	-19	-18	하와이

* 일광절약시간은 통상 3월 두 번째 일요일에 시작하여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종료

□ 환율 및 환전

- 화폐단위 : 미국 달러 USD(\$)
 - (지폐) \$1, \$2, \$5, \$10, \$20, \$50, \$100
 - (동전) 1¢, 5¢, 10¢, 25¢, 50¢, \$1 * \$1(달러)=100¢(센트)
- 환율 : 1달러=1265.13원 (*2022년 5월 기준)
 - 미국 달러와 원화 간 환전은 은행, 공항 등에서 가능. 미국 현지에서 원화와 달러 간 환전은 환전소 및 대형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가급적 출국 전 환전하여 가는 것을 권장
- 신용카드 : 호텔, 백화점, 대형 식당 및 상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일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점도 있어 현금 지참 권유
 - 미국 현지에서는 VISA와 Master 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

□ 전압

- 110V, 60Hz를 사용. 한국과 전압 사용이 다르니, 출국 전 미국용 어댑터를 준비해야 함.



[일명 돼지코]

□ 교통

- (택시) 기본요금은 3.50달러(1/8마일 기준)이며 기본 거리를 초과한 후부터는 1마일당 2.16달러의 요금이 가산됨. 승객 당 0.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며,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1마일=1.6km, 1/8마일=0.2km
- (버스) 일반 요금은 2달러이며, 구간별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음.
- (지하철) 피크 시간대와 오프피크 시간대의 요금에 차이가 있으며, 오프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 30분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요금이 더 저렴함. 운행 구간에 따라 요금은 상이하며, 평균적으로 2~6달러 사이임. 종일권(All Day Pass)은 14.75달러에 구매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지하철 카드(Smart Trip)를 구매하여 충전하여 사용함. 동 카드는 지하철역에서 구매 가능하며 지하철 키오스크 및 온라인에서 충전 가능함.

<워싱턴 지하철 노선도>



☐ 통신

○ 휴대전화

-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
- 대표적인 무선통신 회사로는 버라이즌(Verizon), 에이티앤티(AT&T), 티모바일(T-Mobile) 등 3개 사가 있으며, 유심칩(USIM)을 구매하여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선결제(prepaid) 방식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한달 이상의 일정일 경우에 사용하길 권장

○ 국제전화

- 국내 및 국제통화는 원활한 편이며, 국제전화의 경우 로밍 서비스 및 편의점 등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매해서도 사용 가능

전화 사용 방법			
국제 전화	미국 → 한국	일반전화	1) 011-82-0을 제외한 지역번호-전화번호 2) +(0을 길게 누름)82-0을 제외한 지역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1) 011-82-맨 앞의 0을 제외한 핸드폰번호 2) +(0을 길게 누름)82-0을 제외한 핸드폰번호
	한국 → 미국	일반전화	001-1-전화번호
		휴대전화	001-1-전화번호
국내 전화	미국 내 통화	일반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 와이파이

- 미국 내 일반 가게에서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스타벅스 및 기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함.

□ 현지 공휴일 정보

○ 출장지양 기간

- 연초/연말 : 한국과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부터 연말연시에는 비즈니스 거래 소강상태

<미국 연방 공휴일>

공휴일 명	기 간
신년	1월 1일
마틴루터킹 탄생일	1월 3째주 월요일
워싱턴 탄생일	2월 3째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노예해방기념일	6월 19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노동절	9월 1째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	10월 2째주 월요일
재향 군인의 날	11월 11일
추수감사절	11월 4째주 목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단,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하루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공휴일을 준수

□ 안전

○ 신변 안전

- 워싱턴 D.C.는 미국 내 다른 주들과 비교 시 안전한 도시지만,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짐. 주요 볼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있음.

□ 비즈니스 상식 및 에티켓

○ 식사

- 미국인들은 저녁 시간을 업무에 할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 관련 식사 약속은 오찬 또는 조찬에 이루어짐.
- 웨이터에게 팁을 너무 적게 지급할 경우 초대를 받은 상대방이 무안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 * 통상적으로 식사비용의 오찬 시 18%, 만찬 시 20% 정도 팁을 지급
-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을 요망하며, 반드시 받아야 할 전화가 있을 경우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잠깐 피해서 받는 것이 좋음.
- 남의 그릇 위로 팔을 뻗는 것은 금물이므로 근처 사람에게 전달을 요청
- 남의 음식에 손을 대거나 내 음식을 남의 그릇에 옮기지 말아야 함.

○ 복장

- 미국인들의 경우 한국인과 달리 비형식적인 면이 강함. 비즈니스에 임하면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연령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 사무실 내에서 캐주얼 복장 착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장을 선호함.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미팅이나 상담 등의 경우는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장은 회색이나 군청색 정장을 유지하면 되나 울긋불긋한 복장은 피해야 하며, 색깔이 있는 넥타이는 무방함.

○ 인사

- 인사를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임.
- 악수를 나누거나 대화를 할 경우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
-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호칭할 경우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례임. Mr, Mrs, Ms, 또는 직업을 뜻하는 명칭을 성과 같이 사용해 호칭하는 것이 공식적이고 존경의 의미를 담음. 추후 일정 정도 관계가 성립되면 친밀감의 표현으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부르기도 함.

○ 선물

- 선물 이외에 돈을 주는 것은 뇌물로 간주하며, 선물도 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위법임. 선물이 50달러 이상 일시 공공기관에 기부하게 되어있음.
-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대면에서 작은 선물은 서먹서먹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바이어의 집에 초대받아 갈 때는 꽃, 화분, 과일바구니, 책 등이 일반적인 선물임.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
-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 혹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예의.

○ 약속

- 비즈니스 약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관습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로 잡는 것이 일반적임.
- 약속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약속 1일 전 또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상대방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이메일로 다시 알려주는 성의를 보이고 양해를 구해야 함.

○ 미국 생활예절

- 재채기나 기침이 나올 경우, 옷 소매, 손수건 등으로 가리고 상대방이 없는 쪽으로 몸을 향하는 것이 매너
- 가능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재채기 및 기침을 하는 것을 매너라고 생각

○ 문화적 금기사항

- 미국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이므로, 사람의 피부색, 말투, 사회적 신분, 종교 등에 기준해서 비판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
- 특정 종교, 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농담이라 할지라도 절대 금물. 특히, 외모에 대한 언급은 절대 삼가.

II. 미국 경제 동향

1. 국가 개요

국명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경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13개 주 독립선언일)
국가지도자	조 바이든 (Joe Biden) 대통령 제46대 대통령 (2021년 1월 취임)
수도	워싱턴 D.C. /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주요도시	New York(840만 명), Los Angeles(397만 명), Chicago(270만 명), Houston(233만 명), Phoenix(166만 명), Philadelphia(158만 명), San Antonio(153만 명), San Diego(143만 명), Dallas(135만 명),
위치 및 면적	위치: 미주대륙 북부 면적: 980만km ²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 세계 3위의 면적. 농지 47%와 산지 29% 등으로 구성
인구	3억 2천 9백만 명 (2022년 5월 기준, 세계 3위)
민족	백인(76.5%), 흑인(13.4%), 아메리카 원주민(1.3%), 아시아계(5.9%),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주민(0.2%), 2개 이상 인종(2.7%) ·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되어 집계되었으며,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8.3%에 해당
언어	영어 (일부 지역은 스페인어 통용)

2.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GDP(US조 달러)	19.3	20.5	21.4	20.9	22.9
1인당 GDP(US 달러)	59,501	62,606	65,112	63,416	69,231
경제성장률(%)	2.3	2.9	2.3	-3.51	5.7
소비자 물가상승률(%)	2.1	1.9	2.3	1.6	7.0
실업률(%)	4.4	4.0	3.5	8.1	3.6
상품 교역액(US조 달러) 증감률(%)	3.91(△6.36)	4.23(△7.54)	4.16(▽1.61)	3.78(▽10.21)	4.61(△18.10)
수출(US조 달러)	1.56(△6.3)	1.68(△7.15)	1.65(▽1.50)	1.42(▽15.63)	1.76(△18.90)
수입(US조 달러)	2.36(△6.33)	2.56(△7.80)	2.51(▽1.67)	2.35(▽6.92)	2.85(△17.60)
무역수지 (US억 달러)	-7,993(▽6.20)	-8,787(▽9.04)	-8,615(▽2.00)	-9,220(▽6.56)	-10,913(▽15.52)
FDI (Position, US백만 달러)	4,025,492	4,344,610	4,590,836	4,526,200	- (상무부 7월 발표예정, 잠정)
외환보유고(US억 달러)	1,221	1,235	1,294	1,260	1,261
총외채(US조 달러)	20.2	21.5	22.7	21.3	28.43
환율(원/US\$달러)	1178.58	1117.05	1187.14	1086.3	1,2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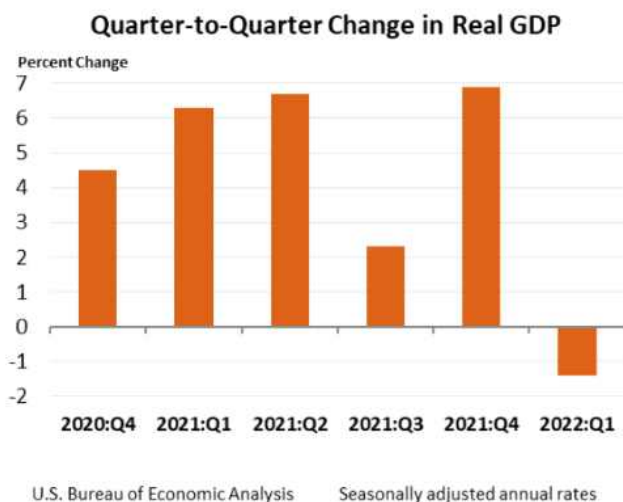
* 자료원 : 국제금융기구(IMF), 美 재무부,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은행,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obal Trade Atlas

3.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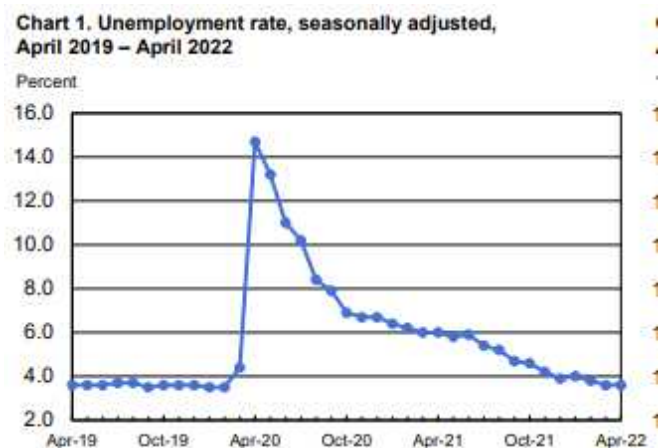
- 연간으로 환산한 비율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 4분기에 6.9% 증가했고, 2022년 1분기 명목 경제성장률은 1.4% 하락을 기록
 - 미국 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직격타를 맞은 2020년 2분기(-31.2%) 이후 처음
 - 하락 원인으로는 미국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재고 보유량 축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4.7%까지 치솟았지만, 2022년 5월 발표 자료 기준 3.6%로 상당 부분 회복세
 - 미국의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육박한 수준까지 회복
 - 고용회복 척도로 사용되는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2.4%로 소폭 상승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 수준에 1%포인트 차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원 : 美 상부무 경제분석국(BEA)

<미국 실업률 추이>



* 자료원 : 美 노동 통계청(BLS)

□ 상품 대외무역

- (교역) 2021년 교역액은 약 4조 6,1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10% 증가
 - (무역수지) 2021년 무역적자가 1조 9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52% 증가
- (수출) 수출은 1조 7,6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90% 증가
 -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 순
 -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연료,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광학기기 등
- (수입) 수입은 2조 8,5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60% 감소
 - 주요 수입대상 국가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독일, 일본, 베트남, 한국 순
 -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광물연료, 의약품 등

<2019-2021 대외무역추이 비교표 (단위 : 백만 달러)>

	2019	2020	2021
수 출	1,652,072	1,428,798	1,761,709
수 입	2,513,587	2,350,825	2,853,093
총 액	4,165,659	3,779,623	4,614,802
무역수지	-861,515	-922,026	-1,091,384

* 자료원 :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Ⅲ. 교역 동향

1. 주요 교역 동향

<2021 미국의 10대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미국통계 기준)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캐나다	307,001	17.5	중국	506,367	17.9
2	멕시코	276,459	15.8	멕시코	384,705	13.6
3	중국	151,065	8.6	캐나다	357,160	12.6
4	일본	74,970	4.3	독일	135,224	4.8
5	한국	65,772	3.7	일본	135,133	4.8
6	독일	65,174	3.7	베트남	101,908	3.6
7	영국	61,463	3.5	한국	94,955	3.4
8	네덜란드	53,580	3.1	대만	77,138	2.7
9	브라질	46,882	2.7	아일랜드	73,718	2.6
10	인도	40,130	2.3	인도	73,261	2.6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5대 수출, 7대 수입 대상국이며, 각 3.7%와 3.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 미국의 수출은 USMC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30% 이상 치중되어 있으며, 수입에서는 중국이 전년대와 동일하게 1위로 약 17.9% 차지
- 한국의 對미국 수출은 2015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처음으로 3% 이상의 점유율 기록 및 꾸준히 유지

<2021 미국의 주요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광물연료	239,780	13.67	기계류	417,081	14.72
2	기계류	209,284	11.93	전자기기	406,439	14.35
3	전자기기	185,404	10.57	수송기계	277,318	9.79
4	수송기계	122,202	6.97	광물연료	215,098	7.59
5	광학기기	91,680	5.23	의약품	148,709	5.25
6	항공우주	89,136	5.08	광학기기	104,131	3.68
7	진주, 귀석, 귀금속	82,257	4.69	진주, 귀석, 귀금속	95,386	3.37
8	의약품	77,962	4.44	플라스틱	76,527	2.70
9	플라스틱	74,311	4.24	가구 및 침구류	73,029	2.58
10	유기화합물	42,881	2.44	유기화합물	62,840	2.22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 한국과의 경제교류

가. 수출입 동향

□ 수출입 동향

<한국의 對미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역량	119,359	131,558	135,223	131,608	169,115
증감률(%)	8.1	9.3	2.7	-2.7	22.2
수출	68,610	72,720	73,344	74,116	95,902
증감률(%)	3.2	6.0	0.9	1.1	29.4
수입	50,749	58,868	61,879	57,492	73,213
증감률(%)	17.4	16.0	5.1	-7.1	27.3
무역수지	17,861	13,852	11,465	16,624	22,689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교역) 2011년 1천억 달러를 돌파한 후로 2016년을 기점으로 잠시 하락했으나, 2018년 이후 1,300억 달러로 반등
- (수·출입) 2021년 한국의 對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29.4% 증가했으나, 수입 또한 27.3% 증가
- (무역수지)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추세는 한·미 FTA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18~2019년 큰 폭으로 하락 후 2020년부터 다시 상승세

□ 對미국 주요 수출품목

<한국의 對미국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20	2021	
			금액	금액	증감률
총계			74,116	95,902	29.39
1	87	수송기계	21,086	23,976	13.71
2	84	기계류	16,697	20,939	25.41
3	85	전자기기	14,446	18,011	24.68
4	27	광물연료	2,358	4,810	104.03
5	39	플라스틱	2,952	4,389	48.68
6	73	철강제품	1,522	2,451	60.97
7	72	철강	1,063	2,163	103.37
8	90	광학기기	1,583	1,866	17.87
9	29	유기화합물	894	1,414	58.17
10	40	고무	1,443	1,347	-6.63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對미국 수출품목 1위는 수출액 기준 제조업 회복과 함께 2010년부터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인 수송기계 및 부속품으로 전년 대비 13.71% 증가
- － 2021년 對미국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제품은 광물연료로 전년 대비 104.03% 증가했으며, 고무제품은 -6.63%의 증감률을 보여 품목 중 가장 저조한 기록

□ 對미국 주요 수입품목

<한국의 對미국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20	2021	
			금액	금액	증감률
총계			57,492	73,213	27.35
1	27	광물연료	11,870	19,846	67.20
2	84	기계류	8,065	10,255	27.16
3	85	전자기기	6,063	6,435	6.15
4	90	광학기기	4,117	4,777	16.03
5	87	수송기계	2,899	4,027	38.91
6	02	육류	2,282	2,667	16.84
7	30	의약품	1,538	2,145	39.48
8	29	유기화합물	1,999	1,862	-6.84
9	88	항공우주	1,713	1,770	3.28
10	39	플라스틱	1,619	1,669	3.07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한국의 주요 對미국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광물연료로, 전년 대비 약 67.20%의 증가를 기록
 - 2020년 대비 제품 중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품목 역시 광물연료이고 다음으로는 의약품 39.48%의 증가세 기록
 - 반면, 수입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제품은 유기화합물로 전년 대비 6.84% 하락

나. 한미투자 동향

□ 한국의 對미국 투자 동향

- 2021년 기준 한국의 對미국 투자금액은 약 276억 달러 기록
- 한국의 對미국 투자(신고건수 기준)는 201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로, 2021년 2,681건을 기록함.

<연도별 대미국 투자 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개)	신고금액 (억\$)	송금횟수(회)	투자금액 (억\$)
2016	1,780	519	179	2,492	137
2017	1,844	542	137	2,512	152
2018	1,939	548	127	2,519	112
2019	2,068	652	184	2,781	148
2020	1,929	520	183	2,558	152
2021	2,203	617	371	2,681	276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미국의 對한국 직접투자(FDI) 동향

- 2021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약 52억 5천만 달러(신고기준)로 전년 대비 약 0.9% 감소
- 2020년 369건으로 집계됐던 신고 건수는 2021년 416건으로 약 13% 상승

<연도별 미국의 對한국 FDI 추이>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409	4,710,299	368	5,878,967	404	6,849,224	369	5,302,249	416	5,255,512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IV. 워싱턴 지역정보

1. 일반 사항

명칭	워싱턴 특별시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특징	미국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특별 행정구이자 연방정부 직할 독립 도시
정부	- 시장 : Muriel Bowser (민주당) *2015년 취임 - 연방하원의원 : Eleanor Holmes Norton
면적	- 도심 : 177km² - 광역지역 전체 : 14,412km² *서울(605km²)의 약 24배
인구	- 도심 : 68만 명 ('22년) - 광역지역 전체 : 543만 명 ('22년)
GDP	- 도심 : 1,258억 달러 ('21년) - 광역지역 전체 : 4,851억 달러 ('20년)
산업별 고용	- 전문직/비즈니스서비스(24%), 정부관련(22%), 교육/건강서비스(13%), 무역/교통/공익사업 (12%), 관광·레저산업(11%)

* 워싱턴 광역지역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및 웨스트버지니아주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미국의 6번째(인구 기준)로 큰 광역지역임

[워싱턴DC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가는 계획도시
- 미국의 수도는 뉴욕(1785-1790), 필라델피아(1790-1800), 워싱턴DC(1800-현재)로 변경
- 워싱턴DC는 조지 워싱턴(미국 초대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의 이름에서 따
-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의 중심 관청이 모두 위치
- 워싱턴DC에는 174개의 대사관이 위치
- 워싱턴DC 거주자 중 15%는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
- 워싱턴DC 내 건물은 워싱턴 기념탑(169.16m) 보다 높게 지을 수 없음
- 정식 연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원 의석은 없으나, 표결권이 없는 미국 하원 파견대표 1명, 대통령 선거인단 3표를 확보
- 워싱턴DC의 연평균 강수량은 39인치(990mm)로 시애틀(969mm)보다 많음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1,458mm)

2. 주요 경제지표

구분	워싱턴 DC 광역지역		
	수치	증가율(%)	비중(%)
인구(만 명)	543만 명		1.9
면적(만 km ²)	14,412		0.15
GDP(억 달러)	4,851	-1.4%	2.7
실업률	6.0%('22년 3월)	-0.1%('22년 2월)	-
수출(백만 달러)	453 ('20년)	22.7%	0.2%
개인당 평균지출(달러)	89,052('20년)		* 미국전체평균 : 62,395
개인당 평균소득(달러)	131,740('20년)		* 미국전체평균 : 80,750

* 자료원 : 미국 통계청

3. 워싱턴 지역경제 위상

□ 워싱턴 경제의 현황

- 코로나19 및 고용
 - DC의 2022년 3월 실업률은 6.0%로 전월 대비 0.1% 하락세(2022년 4월 기준)
 - DMV 지역 실업률은 3.6%로, 전년도 동월 대비 0.2% 감소(2022년 2월 기준)
- 연방정부 기반의 경제 구조
 - 연방정부가 워싱턴 일대에서 36만 명의 공무원과 관련 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지역 고용의 22%를 담당
 - 2001년 이후 연방정부의 워싱턴지역 내 지출이 50% 이상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함. 특히 워싱턴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상품과 서비스 조달 비율이 증가
- 민간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증가
 - 포춘 선정 미국 1,000대 기업 중 30개 사의 본사가 워싱턴 광역지역에

소재

- 미국의 수도라는 특성으로 인해 총 6,600개에 달하는 각종 협회와 비영리기관 1,500개가 이 지역에 본부를 두고 활동

○ 첨단산업의 메카로 각광

- 항공 방위 산업, 생명공학, IT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급성장하여 5만 명 이상의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분야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활동
- 미국 보건정책과 연구의 핵심인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명공학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전 세계의 생명공학 연구 및 개발을 선도
- 정보통신 분야에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보다 3만 명이나 많은 22만 명 이상의 IT 관련 종사자가 근무하는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손꼽힘

○ 지식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

- 연방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첨단산업의 삼각 주축대를 바탕으로 법률, 금융, 미디어, 관광 등 지식 고부가가치 산업이 진출해 있음

□ 워싱턴 지역 주요 산업 동향

○ 항공방위 산업

- 워싱턴 D.C. 인근에 소재한 12대 주요 방위산업체의 총매출액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방산 제품 수출은 전 세계 군수품 시장의 37%, 수입은 13.5%를 차지하는 등 항공 방위 산업은 미국의 핵심 산업으로 여겨짐
- 국방부와 각종 군 기관이 위치해 있는 워싱턴 광역지역은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총본산으로 이 분야에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활동

○ 바이오/제약 산업

- 미국은 전 세계 생명공학 관련 특허의 2/3를 보유하여 생명공학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 구가
- 워싱턴 지역에는 국립보건원(NIH), 식약청(FDA), 존스 홉킨스 외과대학 등 바이오 관련 정부 기관 및 연구단체가 소재하고 있어 미국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

-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를 중심으로 400여 바이오 연구개발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전통 제약기업과 신생 바이오기업 간 기술제휴, M&A, 라이선싱 계약 등이 활발히 진행 중

○ IT 산업

- 워싱턴은 IT분야 지역 총생산 전미 1위 지역으로서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 시에도 워싱턴 및 인근 지역은 지속해서 성장
- 상용품 개발 위주의 실리콘밸리/보스턴과 달리,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의 IT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종합 솔루션 제공에 주력하여 델러스, 애틀랜타에 이어 미국 내 3위 텔레커뮤니케이션 클러스터를 형성

○ 서비스 및 관광 산업

- 정치, 사법, 행정의 중심지답게 세계적인 법률회사들이 워싱턴 중심의 K Street를 중심으로 밀집해있으며 법률서비스 외에도 의회를 대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로비스트로서의 역할도 겸함
- 조지타운, 존스 홉킨스, 조지 워싱턴 대학 등의 유수의 대학기관들이 소재하여 교육, 의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의 14%에 달함
- 매년 약 1천 5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은 관광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최고 수준으로 광역 워싱턴 지역은 행정부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기념물이 많은 곳으로 관광 수입이 시 전체의 2번째로 큰 수입원일 만큼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음.

V. 기타 유용정보

1. 주요 관광지

□ 워싱턴 기념탑 (Washington Monument)

-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완전 석조 구조물(169m 높이)로서 1848년 기석이 만들어진 이후 완성까지 37년이 걸렸다.
- 탑의 주위에는 미국 50개 주를 상징하는 국기가 둘러져 있고 탑 꼭대기의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다.
- 기념탑 앞으로는 길이 690m에 달하는 인공 수조인 리플렉팅 풀이 조성되어 있어 해가 진 후 조명을 밝힌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이 물 위에 비친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흥미로운 사실]

- 기념탑을 보면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색이 다르다. 1854년 자금난과 남북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적이 있는데, 다시 공사를 재개했을 때는 같은 색의 대리석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 1889년 파리의 에펠탑(당시 높이 300m)이 완공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 국회의사당 (The Capitol)

- 미 상원, 하원 및 그 부속기관을 수용하고 있는 워싱턴의 대표 건물로서, 그리스 복고 양식으로 건설되어 중앙의 돔 아래는 유명한 로툰다로, 둘레의 벽에는 콜럼버스부터 미국의 역사를 그린 유화와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 건물의 한 가운데에는 링컨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가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고 의회가 개최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

- 국회의사당 지하에 욕조가 있다. 1859년에 4개의 대리석 욕조가 설치되었는데 상원의원의 대다수가 수도가 나오지 않는 집에 거주하면서 직장에서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꼭대기에 6m의 청동으로 만든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동상은 작아 보이지만 무게는 약 7,000k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 백악관 (White House)

- 약 200년간 미국 대통령의 관저이자 집무실의 역할을 해온 백악관은 총 132개의 방이 있는데, 1층의 이스트 룸과 그린 룸, 블루 룸, 레드 룸, 스테이트 다이닝 룸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흥미로운 사실]

-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백악관에서 살지 못했다. 백악관은 조지 워싱턴 사후 1년 만에 완공되었으며,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인 존 아담스부터 백악관에서 거주하였다.
- 1814년 미영전쟁 당시 영국군의 공습으로 건물이 불타고 무너져 재건하였다.
- 1878년까지 백악관의 전화번호는 단순히 숫자 1이었다. 1929년까지 대통령 방에 전화기가 설치되지 않았었다.
- 백악관에는 총 35개의 욕실이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성 중립(Gender neutral) 화장실을 설치했다.
- 백악관은 항상 흰색이 아니었다. 백악관의 골격은 버지니아주의 회색 사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북쪽과 남쪽 현관은 매릴랜드주의 붉은 세네카 사암으로 지어졌다. 사암벽은 영국 화재 이후 백악관이 재건될 때까지 흰색으로 칠해지지 않았었다.
- 백악관의 전체를 칠하려면 570갤런(약 2,200톤)의 흰색 페인트가 필요하다.
- 백악관에서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을 키웠다. 캘린 쿨리지 대통령은 곰, 피그미 파마, 새끼 사자도 키웠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백악관 잔디밭을 정돈하기 위해 양을 키웠으며, 이 양털을 팔아 적십자 기금도 마련했다.
-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의 앤드류 잭슨 동상은 1812년 전쟁에서 가져온 영국 대포로 만들어졌다. 또한 이 동상은 미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승마 동상이다.



□ 링컨 기념관 (Lincoln Memorial)

-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본떠서 지어졌으며, 36개의 도리아식 기둥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거대한 대리석 좌상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

- 링컨의 두 번째 취임 연설문을 새기는 도중, '미래(Future)'의 'F'를 'E'로 잘못 새겼다. 현재는 수정된 상태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오타가 보인다.

□ 제퍼슨 기념관 (Thomas Jefferson Memorial)

-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기념관으로 워싱턴 기념탑 남쪽에 위치한다.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으며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 기념관 앞에서 타이들 베이슨 호수(Bital Basin) 건너편 워싱턴기념탑이 조망이 되는데 벚꽃이 만발하는 봄이 되면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이 몰린다. 이 벚꽃은 1912년 도쿄 시장이 선물한 품종이다.

□ 알링턴 국립묘지 (Arlington National Cemetery)

-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전사자 매장을 위하여 연방정부가 토지를 매입해 조성한 국립묘지이다. 남북전쟁, 1,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걸프전 등 여러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우주인, 간호사, 노예 및 테러 희생자 40만 명이 잠들어 있다.



[흥미로운 사실]

- 우리나라 국립 현충원의 1.8배,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국립묘지이다.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 워싱턴 국립 대성당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인 워싱턴 국립 대성당은 영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 성당으로, 국가적 차원의 범종교적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립 대성당”으로 불린다(대통령 취임식 기도회, 국장(國葬) 거행).



- 1891년 의회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기도하고 국가 차원의 행사를 개최할 장소”를 만든다는 취지로 대성당 건립이 결정되어, 100년이 지난 뒤인 1990년에야 완공되었다.

[흥미로운 사실]

-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교회 건물이며, 워싱턴DC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안치되어 있으며, 그는 워싱턴 DC에 묻힌 유일한 대통령이다.

□ 조지타운 (Georgetown)

- 워싱턴DC 북서부에 위치한 근교 지역으로 워싱턴DC에 편입되기 이전 1700년대 식민지 시절부터 있던 작은 도시이다. 유럽풍의 돌 바닥으로 오래된 거리가 이어지고 아기자기한 상점가가 많아 항상 사람이 붐빈다.



[흥미로운 사실]

- 워싱턴DC의 고위 인사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다.
- 워싱턴DC가 설립되기 40년 전부터 존재했던 곳으로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

□ 국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 국회의사당 동쪽에 위치,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자료가 많은 도서관으로 손꼽힌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3,000만 권 이상의 도서와 6,000만 건의 문서, 사진, 회귀 전시물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

- 국회도서관은 원래 의회에서 사용하는 책만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830년부터 도서관에 대한 대중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1897년부터 공식적으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 국회도서관장의 직책은 대통령 임명직이다.

□ 국립 문서 보관소(National Archives Museum)

- 미국 연방정부에 관한 많은 자료와 사진, 중요한 문서를 보관, 관리하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가 있는 곳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보물인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 미합중국 헌법(U.S. Constitution),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보관하고 있다. 문서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내부를 서늘하고 어둡게 해 두었다.



□ 마운트 버넌 (Mt. Vernon)

-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가 있는 마운트 버넌은 그가 22살 때부터 서거할 때까지 살던 장소이다.
- 워싱턴이 살던 저택과 그의 무덤이 있으며 저택 안에는 생전에 쓰던 책상과 의자, 침대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조지 워싱턴 생전 자취를 느끼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2. 호텔 및 식당

□ 주요 호텔

호텔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윌라드 호텔	DC 도심	202) 628-9100	www.willardwashington.com
JW 메리엇	DC 도심	202) 393-2000	www.marriott.com
캐피털 힐튼	DC 도심	202) 393-1000	www.hilton.com/en/
그랜드하이얏트	DC 도심	202) 582-1234	www.grandwashington.hyatt.com
웨스턴 알링턴	알링턴	703) 717-6200	www.westinarlingtongateway.com
메리디언 호텔	알링턴	703) 351-9170	www.starwoodhotels.com/lemeridie
세라톤 타이슨스	타이슨스	703) 448-1234	www.sheratontysonscorner.com
메리어트 타이슨스	타이슨스	703) 734-3200	www.marriott.com

□ 주요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한강(한식)	703) 256-7077	724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빛고을 순두부(한식)	703) 333-3436	4121 Chatelain Rd #100, Annandale, VA 22003
중화원(중식)	703) 256-8006	4409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32
타치바나(일식)	703) 847-1771	6715 Lowell Ave, McLean, VA 22101
스시락(일식)	571) 312-8027	1900 Clarendon Blvd, Arlington, VA 22201
올드에빗그릴(양식)	202) 347-4800	675 15th St NW, DC 20005
Founding Farmers(양식)	202) 822-8783	1924 Pennsylvania Ave NW, DC 20006
The Cheesecake Factory(양식)	703) 506-9311	1796 International Dr, McLean, VA 22102

3. 유용한 연락처

□ 주요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경찰 및 앰블런스	911	—
긴급의료시설	국번 없이 411	—
주미대한민국대사관	202-939-5600	2450 Massachusetts Ave. N.W. DC 20008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202-939-5653	2320 Massachusetts Ave. N.W. DC 20008

□ 무역관 연락처

○ (대표전화) +1-202-857-7919

○ (주소) 1660 L Stree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성명/직위	전화번호(직통)
강상엽 / 관장	202-857-7919 (101)
진준현/ 차장	202-857-7919 (102)
정세원 / 과장	202-857-7919 (103)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